

制度變革과 構造變革

—經濟的 側面에서 본 後進國의 近代化 概念—

朴 喜 範*

- 一. 序 論
- 二. 經濟的後進性에 관한 諸見解
- 三. 近代化를 위한 理論의 諸特徵
- 四. 結 論

一. 序 論

일반적으로 말해서近代化란 窄은 傳統的 文化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는 過程으로 해석할 수 있다. 傳統的 文化란 뜻을 封建的인 것으로 해석해도 좋고, 商業資本 내지 高利貸資本의 원시적 축척을 특징으로 하는 前資本主義的 文化로 해석해도 좋고, 또한 단순히 Rostow의 이론바 傳統的 社會로 이해해도 좋다. 다만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恒久的인 停滯 내지는 單純再生產을 되풀이하는 停滯的 經濟社會를 뜻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經濟的 停滯과 해서 生產力이 남아 돌면서도 有効需要의 不足 때문에 失業이 발생하고 經濟發展이 제약되는 高度로 발전된 工業社會의 그것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窄은 文化的 制度的 諸要因이 產業資本의 動員을 제약하는 까닭에 稀少한 生產資本과 潛在的으로 남아도는 勞動力간의 不均衡에 기인하는 構造的失業을 내포하면서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는 農業社會이거나,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經濟學

아니면 資本蓄積이 農民 혹은 消費大衆으로부터의 일방적인 收奪을 뜻 할 뿐 그것이 經濟발전에 기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停滯狀態를 면하지 못하는 商業資本主義 혹은 高利貸資本主義 社會의 그것을 말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엔 일방적 收奪이 있을 뿐 그에 뒤따른 生產的인 投資가 없기 때문에 일부 非生產的 雇傭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失業의 累增傾向을 특징으로 하며, 富益富 貧益貧으로 인한 社會不安의 根本要因을 造成하는 生產力의 발전 따라서近代化는 이룩되지 못한다.

이점을 좀 더 부연하면 高利貸資本의 원시적 축척은 商業資本의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附隨的 現象이지만, 商業資本의 原始的 蓄積은 그것이 近代化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바 重商主義(mercantilism)은 英國에 있어 한편에서는 海外貿易을 위해 國內手工業의 발전을 초래케 하여 이를 工場制手工業(manufacture system)으로 전환케 하였고, 다른 한편에선 原始的 蓄積의 要主源泉이 海外貿易이었기 때문에 축척된 商業資本은 사실상 國富의 증가를 뜻하였다. 따라서 英國에 있어서의 商業資本은 처음부터 經濟發展의 契機를 대포하고 있었으며,蓄積된 資本 그 자체는 技術의 發明만 있으면 產業資本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진국의 商業資本은 19世紀의 유우롭,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 있어서나, 과거의 植民統治에서 벗어난 오늘의 후진국에서나, 英國의 重商主義와 같은 歷史的 使命을 담당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후진국의 商人資本은 先進產業資本을 배경으로 하여 같은 同胞인 農民과 都市의 消費大衆을 일방적으로 收奪하여 肥大할 뿐 그 자체가 國富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產業資本으로 전환될 契機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 近世 初期 프랑스人们이 그들을 摾取하고 있었던 英國 및 和蘭의 商人們은 吸血鬼로 比喻하여 친정한 國富의 증가 혹은 生產力의 발전을 農業發展에서 구하여 重農主義(Physiocracy)를 부르짖은 史實과 독일의 商人同盟이 英國 產業資本의 買辦이 되어 얼마

나 國家利益과 배치된 暴利行爲를 했던가를 回顧한다면, 이 點은 首肯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① 뿐만 아니라 獨立 후 印度 및 베어마의 近代化
過程에서도 商人資本 및 高利貸資本의 자발적인 寄與는 이를 거의 期待
할 수 없었다. ② 한마디로 말해서 후진국의 商業資本은 先進 產業資本
과 結托합으로서만 더욱 많은 그리고 더욱 安易하게 資本의 축적이 가
능한 까닭에 國家의 適切한 政策이 없는 限 生產力의 발전을 수반하는
產業資本으로의 轉換없이 언제까지나 先進資本의 買辦的 役割을 다 할
뿐이다.

다음으로 近代化가 새로운 文化의 創造過程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文
化 그 자체도 一義的으로 規定지울 수는 없다. 經濟發展段階說이 과거
의 經濟事實을 단순히 回顧的으로 整理·敘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뿐, 展望的 문제提起 내지는 政策的 指標로서는 거의 無意味하거나, 단
순히 과거를 機械的으로 未來에 投影하는 따위의 믿을 수 없는 諸假說
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假說이 일면의 眞理를 간직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長期的인 傾向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다 볼 수 있는 未來에
대한 展望的 내지 政策的 觀察에 대해서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文化世界가 資本主義的일 수도 있고, 社會主義的일 수
도 있다. 그리고 資本主義的 文化의 創造라 하더라도, 반드시 19世紀의
西歐的 資本主義의 再現을 뜻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東洋的일 수도 있
을 뿐더러 先進的 混合經濟와 다른 後進的 混合經濟일 수도 있고, 植民
地型일 수도 있는 동시에 民族主義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主

① C. J. H. Hayes, *Nationalism*, New York, 1960. (車基壁譯) pp. 60~61. 및 F. List,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1922. pp. 499~506

② 이點에 관한 더욱 現實的인 문제는 다음을 參照해주기 바란다.

K. E. Boulding & Pritam Singh, The Role of the Price Structure in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LII, May 1962. Louis J. Walinsky, *Economic Development in Burma 1951-1960*, New York, 1962. 및 印度의 第三次 5個年計劃에
있어서의 資本調達源泉을 參考하기 바란다.

義的 文化的 創造라 하더라도, 修正主義型일 수도 있는 동시에 스타아
린主義의일 수도 있으며, 基督教社會主義 혹은 포오랜드나 유우고스라
비아의 그것처럼 독특한 自由制社會主義型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集產主義(Collectivism)이기는 하나, 파시즘의일 수도 있다. ③ 이
처럼 近代化가 의미하는 새로운 文化世界는 결코 一義的으로 規定지워
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후진국의 경우 經濟的停滯 혹은 植民地的 隸屬
性이란 經濟的 與件과 그것을 制度上으로 뒷받침해 온 낡은 文化的 傳
統을 出發點으로 하는限, 그 選擇의 範域은 자연히 좁아지며, 또한 可
能하고 가장 能率的인 過程을 태하지 않고서는 近代化 이를테면 새로운
문화world의 創造를 이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의——오늘에 있어서는 그것은 흔히 後進國의인 混合
經濟를 指稱하는 것이지만——이든, 社會主義의이든, 혹은 파시즘 내지
그 밖의 여하한 集產主義의이든 간에, 후진국 近代화의 經濟的 側面은
端的으로 말해서 產業主義(industrialism)의 導入이다. 產業主義란 반드시
工業生產를 위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自給自足의인 農
業社會의 單純再生產과 對稱되며, 단순히 富의 偏重과 所得不均等을 助
長할 罷 經濟的 剩餘(economic surplus)가 非生產的으로 投下되는, 商業
資本主義 내지 高利貸資本主義와 對稱된다. 말하자면 利潤動機에 의해
서 이루어지든, 혹은 政府의 計劃的 考慮아래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은
그 社會의 經濟的 剩餘가 生產的으로 再投資함으로써 生產力의 발전과
그것으로 인한 經濟的 富의 증진을 가져오는 生產樣式을 말한다. 따라서
서 產業主義는 工業으로서도 실현될 수 있고 農業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만 工業立國이냐 農業立國이냐는 自然과 人口란 두 生產要
素의 相對的 稀少性에서 選擇될 政策的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產業主義의 실현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利潤動機에 의해서

③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pp. 170—171.

이루어지는 일은 오히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利潤動機에 의존하는 比重이 상당한 부분을 찾이하는 이른바 混合經濟的 方法과 莫大한 比重을 社會主義的 혹은 그밖의 集產主義的 方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先進資本에 의한 外的強要로 말미암은 낡은 制度의 存續과 先進資本의 利害關係를 代辯하는 이례으로기로서의 經濟的自由主義의 強要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自主的인 政策的 決意가 불가능한 라틴 아메리카 및 그밖의 몇몇 나라를 論外로 한다면, 產業主義의 實現, 이를테면 經濟的近代化는 混合經濟라는 民主主義的 方법에 의해서 성취될 수도 있고, 各種 集產主義的 方法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 亞阿地域의 경우 前者は 印度 및 臺灣등에 의해서 代辯되며, 後자는 中共 및 埃及등에 의해서 代辯된다. J. Strachey 는 印度와 中共을 거북과 토끼로 比喻했지만, ④ 經濟的 成果가 歷史의 全局面을支配하는 唯一의 要因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진국의 經濟的近代化는 적어도 그 初期에 있어 Big-Push가 아니고서는 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二. 經濟的後進性에 관한 諸見解

近代化가 낡은 文化的傳統을 止揚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는 過程을 뜻하며, 이를 經濟的側面에서 보면 單純再生產을 되풀이하는 停滯的 農業社會, 아니면 商業資本 혹은 高利貸資本의 원시적 축적이 있을 畏 經濟剩餘가 非生產的 投資 내지 消費를 위해 再分配되고 마는 停滯的前資本主義社會로부터 經濟剩餘가 生產的으로 投資됨으로써 生產力의 발전과 實質所得의 증가를 가져오는 產業主義社會 (industrialistic

④ G. Strachey, *The Great Awakening*, Published as Encounter Pamphlet, 1961. (李忠孝譯)
pp. 57~76.

society)로의 轉換過程으로 規定하였다. 따라서近代化가 문제될 수 있는 分析의 出發點으로서의 窺은 文化的 一側面인 經濟的 後進性 (economic backwardness)에 대한 明確한 概念의 整理가 요망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概念의 整理가 없이는 문제의 資本을 把握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어떻게 診斷하느냐에 따라 近代化를 위한 理論構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論議되어 온 論點을 概括・要約하고 그것의 올바른 理解에 접근하고자 한다.

흔히 經濟的 後進性에 대해서는 세가지 形容詞가 붙는다. “後進的” backward, “低開發” underdeveloped, 혹은 “開發途上에 있는” developing란 形容詞가 그것이다. 보통 後進의 뜻은 停滯를 그 本質的 內容으로 하는 靜的 概念이고, 低開發이란 發展의 慾望을 대포하는 動的 概念으로 이해되고 있다.^⑤ 예를 들면 H. Myint는 後進的 人民(backward people)이란, 生活上의 戰爭에서 成功하지 못한 一群의 人間으로 이해하여 人間과, 그 發展의 가능성 與否를 결정하는 環境과를 區別하기를 建告한다.^⑥ 말하자면 後進的 人民이란 그들의 生活上의 戰爭에서 環境을 利用하는데 成功하지 못한 人民이란 뜻이다. 그리고 “發展途上에 있는”이란 말은 後進 혹은 低開發이란 말이 後進國의 괴팍한 民族主義的指導者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後進國의 體面을 존중해서 사용하는 先進國의 學者 혹은 為政家들의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말에는 별다른 뜻을 갖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後進國이 다 같이 “發展途上에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따라서 低開發을 潛在的 開發可能性이란 環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定義할 필요가 있는 것은 經濟的 後進性이란 말 뿐이다. 그

^⑤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1957 (李基俊, 林鍾喆譯) p. 6

^⑥ H. Myint,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Backwardness*, Oxford Economic Papers, June 1954.

러나, 이 세가지 말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區別 없이 사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後進的”이란 말에 대신해서 “低開發” 혹은 “發展途上에 있는” 이란 말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用語의 混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後進的”이란 뜻을 어떻게 이해하여 왔던가를 檢討할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戰後 처음으로 後進國의 經濟開發 문제를 提起했던 UN의 “低開發國의 經濟開發方案” (Measur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第一章에서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We have had some difficulty in interpreting the term underdeveloped countries. We use it to mean countries in which per capita real income is low when compared with the per capita real incom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Australia and Western Europe. In this sense, an adequate synonym would be “poor countries”

말하자면 低開發國——여기서는 後進國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란 1人當 所得이 西歐 및 그 밖의 先進國보다 낮은 나라로 해석하여 거의 貧困한 國家란 말과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다. 一定한 水準에 未達하는 1人當 所得의 國家를 後進國이라고 規定하지만, 그 1人當 所得의 基準도 결코 一定하지가 않다. 어떤 사람은 500弗以下의 1人當 所得을 標準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弗以下의 1人當 所得을 標準으로 삼기도 한다. 本質的으로 貨幣化되지 못한 經濟의 所得水準을 貨幣單位로 側定하기도 困難한 문제이지만, 1人當 所得이 가령 Venezuela나 Argentina 처럼 높더라도, 심한 所得不均等으로 대부분의 人口가 貧困에 허덕이고 있는 경우 과연 이를 先進國이라 할 수 있는지도 문제인 것이다.

1人當 所得을 基準으로 先·後進國을 區別하는 立場은 오늘날 가장普遍化되고 있지만, 그것은 事後的으로 나타난 經濟的 事實에 論據를 두고 있는 만큼 後進性의 本源的 痘源을 문제삼지 못하며, 後進國의 科

學的 診斷에 그 根據를 두는 基準이 될 수도 없다. 이려한 態度는 더욱 나아가서 1人當 資本의 不足, 技術의 落後性, 低生產性, 經濟的 貧困, 1人當 消費의 低位 및 未開發資源의 存在등 表象的인 事實에 대한 回顧的인 叙述方法을 통해 後進性을 特徵지우려 한다. R. Nurkse, A. Lewis, N. S. Buchanan 및 H. S. Ellis등 땊은 學者들이 이에 속한다. 이려한 立場의 代表的 學者로는 H. Leibenstein을 들 수 있다.^⑦ 그는 다음과 같이 經濟的 後進性의 特徵을 例舉하고 있다.

Characteristics of underdeveloped Areas

1. Economic

(a) General

- (1) A very high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agriculture usually some 70 to 90 percent.
- (2) "Absolute over-population" in agriculture; that is,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workers in agriculture and still obtain the same total output.
- (3) Evidence of considerable "disguised unemployment" and a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utside agriculture.
- (4) Very little capital per head.
- (5) Low income per head and, as a consequence, existence near the "subsistence" level.
- (6) Practically zero savings for the large mass of the people.
- (7) Whatever savings do exist are usually achieved by a landholding class whose values are not conducive to investment in industry or commerce.
- (8) The primary industries, that is, agriculture, forestry, and mining, are usually the residual employment categories.
- (9) The output in agriculture is made up mostly of cereals and primary raw materials with relatively low output of protein foods. The reason for this is the conversion ratio between cere-

^⑦ H. L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1957 pp. 40~41

als and meat products; that is, if one acre of cereals produces a certain number of calories, it would take between five and seven acres to produce the same number of calories if meat products were produced.

(10) Major proportion of expenditures on food and necessities.

(11) Export of foodstuffs and raw materials.

(12) Low volume of trade per capita.

(13) Poor credit facilities and poor marketing facilities.

(14) Poor housing.

(b) Basic characteristics in agriculture.

(1) Although there is low capitalization on the land, there is simultaneously an uneconomic use of whatever capital exists due to the small size of holdings and the existence of exceedingly small plots.

(2) The level of agrarian techniques is exceedingly low, and tools and equipment are limited and primitive in nature.

(3) Even where there are big landowners as, for instance, in certain parts of India, the openings for modernized agriculture production for sale are limited by difficulties of transport and the absence of an efficient demand in the local market. It is significant that in many backward countries a modernized type of agriculture is confined to production for sale in foreign markets.

(4) There is an inability of the small landholders and peasants to weather even a short-term crisis, and as a consequence, attempts are made to get the highest possible yields from the soil, which leads to soil depletion.

(5) There is a widespread prevalence of high indebtedness relative to assets and income.

(6) The methods of production for the domestic market are generally old-fashioned and inefficient, leaving little surplus for marketing. This is usually true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cultivator owns the land, has tenancy rights, or is a sharecropper.

(7) A most pervasive aspect is a feeling of land hunger due to the exceedingly small size of holdings and small diversified plo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holdings are continually subdivided as the population on the land increases.

2. Demographic

- (1) High fertility rates, usually above 40 per thousand.
- (2) High mortality rates and low expectation of life at birth.
- (3) Inadequate nutrition and dietary deficiencies.
- (4) Rudimentary hygiene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 (5) Rural overcrowding.

3. Cultural and Political

- (1) Rudimentary education and usually a high degree of illiteracy among most of the people.
- (2) Extensive prevalence of child labor.
- (3) General weakness or absence of the middle class.
- (4) Inferiority of women's status and position.
- (5) Traditionally determined behavior for the bulk of the populace.

4. Technological and Miscellaneous.

- (1) Low yields per acre.
- (2) No training facilities or inadequate facilities for the training of technicians, engineers, etc.
- (3) Inadequate and crude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especially in the rural areas.
- (4) Crude technology.

이러한 回顧的 叙述을 통해 後進國의 經濟的 社會的 特徵을 例擧한다
고 해서 後進性 그 자체에 대한 痘源을 診斷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려한 表象的인 徵候는 보다 뿌리깊은 痘源에 의하여 초래된 단순한 결과
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痘源을 묻지 않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痘勢만
으로 後進性을 診斷하고 다만 그러한 하나 하나의 痘勢에 대해 對症療
法으로만 臨하는 한 後進性의 근본적 克服은 고사하고 現狀維持조차 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後進國의 經濟的 近代化 努力은 처음부터 포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後進性의 痘源에 대해 不完全하나마 部分的으로 이를 문제 삼은 學者들은 있다. 먼저 W.W. Rostow는 우리가 말하는 本格的 近代化過程에서 進入을 뜻하는 소위 飛躍段階 (Take-off stage)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⑧

For the present purposes the take-off is defined as requiring all three of the following related conditions:

- (1) a rise in the rate of productive investment from, say, 5% or less to over 10% of national income (or net national product (NNP));
- (2) the development of one or more substantial manufacturing sectors, with a high rate of growth;
- (3) the existence or quick emergence of a polit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exploits the impulses to expansion in the modern sector and the potential external economy effects of the take-off and gives to growth an on-going character.

그는 近代化過程으로 進入하자면 國民所得의 10%以上으로의 生產的 投資率의 上昇과, 하나 以上의 本質的인 製造工業部門의 발전이라는 經濟量的 條件을 들면서 賢明하게도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基本構造가 現存하거나 아니면 急速히 出現”해야 한다는 것을 그 條件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基本構造는 既存事實로서 이미 存在하거나 아니면 急速히 出現해야 한다고 단 생각하는 것이지 積極的으로 그러한 基本構造를 政策的으로 誘導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의 立場에서 보면 그러한 基本構造는 다만 受動的으로 받아드려야만 할 하나의 與件이지, 그것을 政策的으로 操作함으로써 (1)과 (2)의 條件이 더욱 빨리 성숙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3)의 條件, 즉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基本構造 그 자체의 後進性이 痘源인 것이다. 만일 그러

⑧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2, p.39

한 後進性이 除去되기만 하면 國民所得의 10% 이상의 生產的 投資率이나 하나 이상의 本質的 製造工場部門은 오히려 자동적으로 出現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Rostow의 所論은 過去의 經濟的 史實을 回顧的으로 叙述하는데는 便利하지만, 近代化를豫見하고, 展望하며, 이를 計劃的으로 誘導해야 할 오늘날의 後進國의 政策立案家에게는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非生產的인 諸制度의 近代化 없이는 生產的 投資率의 上昇이나 現代化된 製造工場部門의 出現은 물론 그 持續性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Rostow의 이론은 19世紀의 經濟史를 再解釋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오늘날의 後進國의 政策指標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면 A. Lewis는 病源의 本質을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經濟的 後進性으로 資本不足 및 技術知識의 不足를 舉論하지만, 보다 本源的 要因을 經濟制度 (economic institutions)에서 구한다. 이리하여 그는 後進性의 克服을 위해서는 制度變革 (institutional change)을 必要條件으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 經濟成長의 결과로 나타나는 附隨的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의 말을 直接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⑨

Perhaps it is as well to remind ourselves at the outset that economic change does not result exclusively from changes in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may occur because of an increase in capital formation, or because new technological knowledge becomes available, or other reasons not originating in institutional change; a clear example of this occurs when foreigners brings new knowledge or new capital. Growth originating in one of these factors is almost certain to cause institutional change. Alternatively, there may be institutional changes which do not originate in economic change, such as changes produced by religious, political or

⑨ W.A.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1955. Chapter III. 特히 pp. 142~156.

natural upheavals.

다시 말하면 經濟成長은 資本形成과 技術的 知識 및 그 밖의 理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한 經濟成長은 制度變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制度變革은 經濟外의 要因인 宗教的 政治的 혹은 自然的 大變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나, 어느 쪽이냐하면, 역시 그것은 經濟的 變革의 從屬變數이지 獨立變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Lewis에 있어서도 制度變革 그 자체가 後進國近代化를 위한 政策變數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그의 態度는 다음과 같은 그 말로서도 立證된다.

: Also the institutions of any one country are changing all the time however slowly or rapidly. They may be changing in ways which are favourable to growth, but they may also be changing in ways which restrict growth.

이와 같이 Lewis는 經濟成長과 制度變革의 兩立性(compatibility)을 인정하면서도 Rostow와 마찬가지로 制度變革을 政策變數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經濟的 決定을 市場經濟의 推移에 放任하는 19世紀的 自由經濟體制를 뒷바침한 古典的인 資本主義의 諸制度의 自然發生的 擡頭를 大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後進性의 痘源을 올바르게 把握하면서도 制度變革 그 자체를 政策變數로 昇華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制度的 基盤 (institutional framework)의 變革 없는 限生産的 投資率 혹은 資本形成率의 上昇은 고사하고 非生産的 投資性向으로 말미암아 生産的 投資 그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後進國의 實情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態度는 歷史의 수레바퀴를 19世紀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나 진배없고, 歷史的 潮流에의 拒逆을 후진국에 强要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진국의 國家利益을 代辯하는 獨占資本의 스포오크스맨的 役割에 지나지 않는다.

A. O. Hirschman은 開發政策에 있어서의 政府의 積極的 役割은 인정

하나, 制度改革에 의한 組織的인 近代化를 보지 못하는 獨特한 立場을 취한다. 그는 先進經濟와 後進經濟의 經濟問題을 대비할 때 兩者間에는 共通性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전혀 다른 處方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술한다.^⑩ 不況期에 있어서의 先進經濟의 失業勞動은 그 周邊에 未利用의 工場이나 施設을 가지고 있는 고로 필요한 모든 對策은 “결코 分離되어서는 안될 性質의 것들(失業勞動과 遊休施設)을 再結合”하는 일인데 반해서 低開發經濟에서는 기껏해야 擬裝失業 (disguised unemployment)을 가질 뿐 그 밖의 未利用 生產要素을 갖지 못하므로 문제는 “循環的”(景氣變動的)인 것이 차기 보다 “構造的인”성격의 것이라고 말한다. 低開發經濟에서는 遊休資本이나 그 雇用을 폭넓게 부르짖는 訓練된 勞動資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만 農業에서 低利用된 勞動을 가질 뿐, 低利用된 賯蓄能力이나 潛在的 혹은 誤用된 企業家職도 갖지 못하여, 先進國으로부터 導入되기를 기다리는 現代工業技術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各種의 可用技巧 (usable skill)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先進經濟의 課業은 이들 遊休生產要素을 再結合 (recombine)하는 일이지만, 後진국의 그것은 이 모든 諸成分을 結合 (combine)하는 일인데, 兩者는 전혀 성질이 다를 뿐더러, 結合은 再結合보다 더욱 어려운 課業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後진국의 政策은 開發過程의 本質的인 動態的 내지 戰略的 側面에 焦點을 마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stead of concentrating exclusively on the husbanding of scarce resources such as capital and entrepreneurship, our approach leads us to look for “Pressures” and “inducement mechanisms” that will elicit and mobilize the largest possible amounts of these resources.

말하자면 稀少資源의 培養보다는 이들 資源의 가능한 최대의 量을 풀

^⑩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58, p. 6

어내고 動員할 “壓力”과 “誘導機構”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政府가 外部經濟를 創造하는 戰略的 投資에 의하여 民間部門에서 誘發投資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하는 壓力を 주어, 이른바 그의 連鎖効果 (linkag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는 誘導機構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Hirschman의 立場도 既存의 市場經濟를 大前提로 하며 다만 Keynes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의 後進國의 誘發投資를 助長하는데 그의 不均衡成長論의 核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의 역할이 先進的 混合經濟의 그것보다 積極的인 것으로 變貌하였을 뿐 制度變革 그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이다. 과연 半封建的 혹은 前資本主義的 諸制度로 말미암아 不足한 資源이나마 非生產的 用途로 흘러가게 마련인 후진국적 狀況에서 과연 誘發投資의 觸媒로서 政府의 不均衡成長論의 壓力와 그 誘導機構만으로近代化過程이 本軌道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三. 近代化를 위한 理論의 諸特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先進經濟學者들은 後進性을 그 表象的徵候에서 診斷한 나머지, 그 本質的인 病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近代化理論도 단순히 經濟諸量의 關係에서 導出된 論理的 操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의 後進國이 지니는 歷史的遺產과 그들이 處해 있는 歷史的 發展段階에서 諸요한 理論的 模型,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歷史理論으로서의 後進國 開發論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理論의 歷史的 相對性을 無視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오늘의 後進國 近代化 문제가 經濟諸量의 關係로 밖에 映像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接近法으로서 先進理論을 與件이 다른 後進國의 經濟現實에 修正 接木하는 態度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Boeke, Lewis 및 Hagen 등 諸教授가 그 痘源으로서 後進社會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東洋的 내지 热帶地方의 未開社會의 行動樣式을 西歐的 價值觀에서 追求하여 그것이 資本主義的 行動樣式으로 轉轉되기를 기다리는 觀望的 態度로 臨한다. 스카르노大統領을 憤激케 했던 Boeke의 “複合社會論”은 물론 Lewis의 “節約하고 자 하는 意志”(will to economize) 및 Hagen의 “社會變革論”(social change)은 그 代表的인 견해이다. 그들은 賴民地의 百姓이 한결같이 뜯나서 非生產的 行動樣式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뿐, 그것이 西歐的 近代文明의 惠澤을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持續되고 温存되어 왔던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西歐가 東洋에 앞서近代化를 더욱 進取的으로 推進시켰던 經濟的 與件 및 그리고 그것을 精神的으로 뒷바침했던 푸로테스탄티즘의 生活倫理와는 다른 與件을 가졌고 다른 行動規範을 가지는 東洋 및 餘他의 停滯的 後進社會에서 自然發生的으로 서서히 資本主義的 行動樣式이 대두되리라는 따원的 進化論을 내세우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편에 있어 後進地域에 있어서의 新مال데스的 人口增加率을 시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物質的 繁榮을 가져오는 社會的 基盤으로서의 資本主義的 行動樣式의 自然發生的 擡頭를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들의 自家撞着的 理論이다. 社會變革이 이처럼 따원的 進化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안에 人口는 爆發的으로 增加할 것이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는 후진국의 近代化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Prebisch 教授가 전망했듯이 후진국이 오늘의 西歐水準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자면 약 200年이 필요할 것이다.^⑪

19世紀初까지만 하더라도 東洋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던 西歐가 먼저 近代化하게 된 理由로는 첫째로 푸로테스탄트의 生活倫理를 들수 있

^⑪ Paul Rebbisch,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UN Report) New York, 1964, p. 5

고, 둘째로는 당시의 經濟的 與件을 들 수 있다. Baran 教授는 그 經濟的 與件을 대략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西歐에서는 첫째로 商人的 蓄積이 크게 이루어졌고, 특히 그것이 高度로 集中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航海術의 발달과, 그것에 수반하여 海上 및 河川商業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地理的 位置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둘째로 逆說의 이기는 하지만 西歐諸國은 그 商業的 進出을 퍼했던 世界의 諸地域에 비해 自然資源面에서 훨씬 貧困했을뿐 아니라, 당시의 經濟發展 程度에 있어 서도 많은 점에서 先進이라기보다 오히려 뒤떨어져 있었다. 그 結果 海賊行爲에 뜻지 않는 廣範圍에 걸친 貿易과 公公然한 掠奪과 奴隸賣買 및 金礦發見등이 行해져 西歐商人의 손에는 莫大한 財產이 급속도로 축적되었던 것이다.^⑫ 이러한 富의 蓄積은 近代產業資本의 元本이 될 수 있었으며, 航海의 必要는 科學의 발전과 技術의 進步를 促進시켰고, 掠奪的 貿易을 뒷바침한 武力은 武器生產은 機械工業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다. 勸勉과 節約을 내용으로 하는 푸르테스탄트의 生活倫理는 오히려 東洋에 비해 成熟하지 못했던 物質文明과 自然資源의 相對的 貧困이란 西歐의 經濟與件이 그 物質的 土臺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反해서 처음에는 先取의이고 商業的 才能을 가졌던 回教文明이 近世初期에 와서는 宿命的 성격으로 退化되었고, 이미 全盛期를 지난 儒·佛教 역시 더욱 宿命의이고 暫想의 宗教로 轉落하여 宿命論의 東洋的 行動樣式을 낳게 한 데는 오히려 발달한 物質文明과 豐富했던 物的資源이 그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近代化를 위해서는 그 社會變革을 필요로 하는 東洋的 行動樣式이 後進的 停滯의 根本要因이라면, Latin America의 後進性을 설명하지 못한다. Latin America는 西歐와 같은 文化的 要素를 가지고 있지만, 거

^⑫ Paul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57. 특히 經濟成長의 形態學의 考察에 관한 그의 幅闊은 見解를 參照하기 바란다.

기서도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Asia의 停滯와 Latin America의 停滯를 좀 다른 角度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先進資本이 후진지역으로 進出할 때, 첫째로 非生產的인 文化的 傳統이 있는 地域에서는 되도록 그 非生產性을 持續시킴으로써 封建的 收奪과 商業資本 및 高利貸資本에 의한 前近代的 收奪樣式을 確立하였고, 둘째로 傳統的 文化를 갖지 않는 지역에서는 同化하든가 아니면 資本의 힘에 의해서 前近代的 收奪樣式을 새로이 確立함으로써, 本國의 產業資本을 더욱 肥大하게 하는 帝國主義的 收奪體制를 華麗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社會變革은 植民統治下에서도 그려했지만, 오늘에 있어서도 그려한 帝國主義的 收奪關係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前近代的 非生產的 經濟制度를 變革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近代化過程에 進入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지역에서는, 半封建的 土地所有制度를 論外로 하더라도, 經濟的 剩餘의 生產的 投下를 가로 막으므로써 民族資本의 형성을 沮害하고, 단순히 先進資本의 買辦的 役割에 만족하는 商業資本 및 高利貸資本의 原始的 蓄積을 돋는 前近代的 經濟制度가 存在한다.^⑬ 이러한 非生產的 經濟制度를 生產的인 것으로 轉換시키는 社會變革 없이 後進國의 近代化를 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經濟的 停滯를 앞으로도 延長하겠다는 態度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經濟制度가 自然發生的으로 후진지역에서 대두하리라고 기대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沙漠도 自然發生的으로 沃土로 變하기를 기다려야만 했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왜냐하면 후진국의 支配的 經濟勢力이 바로 이 土地資本 아니면 商業資本 혹은 高利貸資本일 뿐 아니라, 또 그 背景에는 先進資本勢力이 待機하고 있으며, 이를 經濟勢力은 既存의 經濟制度와 그 利害關係가 결부되어 있는 까닭에 自然發生

^⑬ 이러한 性質의 商業資本에는 輸入된 原料에 대해 低度의 加工을 하여 國內市場을 相對로 사실상 原始蓄積과 다름없는 蓄積樣式을 취하는 工業資本도 包含된다.

的인 制度變革의 契機를 그 내부에서 찾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ia 地域의 후진국은 爆發的인 人口의 壓力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速成工業化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서는 선사 工業化를 뒷바침할 制度의 近代化가 自然發生的으로 登場하리라고 기대되더라도 그것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立場에 있다.

그런데 후진국近代化를 위한 社會變革의 主要內容을 이루는 制度變革은, 社會主義體制에로의 轉換에서도 볼 수 있지만, 후진적 體質에 알맞는——先進資本主義經濟의 그것과는 다른——混合經濟體制에로의 轉換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의 制度變革은 그 類型이 1930年代에 들어 特化生產에서 多樣的 生產으로 그 產業構造를 變革하는 과정에서 隨伴되었던 파시즘體制에 있어서의 制度變革과 恰似한 점이 있다. 社會主義體制는 資源의 調達과 그 產業別 配分을 中央計畫當局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管掌하는데 適合한 經濟制度를 가졌지만, 파시즘은 流通部門의 要衝인 都賣機能을 국가가 間接的으로 統制함으로써, 必要資源의 調達과 그 大局的 產業別 配分을 管掌하는 데 알맞는 經濟制度를 確立했던 것이다. 후진적 混合經濟에서도 資源 특히 資本調達面에서는, 流通部門 즉 都賣機能과 外國貿易의 直接 혹은 間接的 國家管理에 의하거나 國營企業 혹은 公共企業의 商品價格 대지 公共料金을 政府가 統制함으로써 工業 資本을 調達하는 方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制度는 파시즘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지만 그 목적은, 原始的 蓄積이 있을 뿐 生產的 投資를 수반하지 않는 환계로 富 및 所得의 不均等 뒤에 초래하지 않는 商業資本 및 高利貸資本의 非生產的 投資機會를 國家가 支配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資本을 國家가 生產的으로 投資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非生產的 前近代的 蓄積樣式은 止揚되고近代的 產業主義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經濟的 基盤이 마련되는 셈이다. 후진국의 行政能力이 社會主義의 全面的 產業管理에 未及하고, 또

社會主義의 그것이 많은 社會的摩擦과 浪費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점을勘案한다면, 이러한 混合經濟的 接近法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制一的인 制度의 類型이 確立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라에 따라 각각 다르고, 非合理的인 要素가 완전히 除去된 制度가 確立된例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Asia의 몇몇 나라의 實例는 이러한 制度變革의 方向을 提示해 주었다고 하겠지만, 先進文獻에서는 이 점에 관한 한 후진국의 現實的, 政策的 慾求에 맞는 論議를 찾아 보기 힘들다.^⑭

다음으로 후진국의 경제적 近代化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론바 構造變革이다. 前節에서도 본 바와 같이 先進經濟學者들이 말하는 構造的 變革이란 靜態的 農業社會에서 動態的 工業社會로의 轉換을 뜻하는 것인데 이 見解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Rosenstein-Radan의 Big-Push理論과 Narkse의 均衡成長論 및 Leibenstein의 最少努力說(Minimum Effort Thesis)등이 이에 속한다.^⑮ 또 다른 전해로는 賯蓄率을 일정한 水準, 말하자면 國民所得의 5%의 水準에서 10% 혹은 15%의 水準까지 上昇케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에는 Rostow 및 Lewis가 이에 속한다.^⑯ 그들이 Big-Push라든가, 均衡成長이라든가, 最少限의 努力이라든가, 혹은 一定水準의 賯蓄率이라고서는 후진국 產業의 構造的變革, 즉 工業化

⑭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印度 라이비 莱比 及 埃及등의 經濟制度를 연구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아직은 理論的 構造을勘察할 만큼合理화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目的은 탈았지만 Fascism 및 Nazism의 經濟制度는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合理적으로 짜여져 있었다. 이 점에 대한詳細한 論及은 省略한다.

⑮ Hans Singer, *The Concept of Balanced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Facts*, University of Texas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April, 1958, pp. 4-6.

⑯ Rosenstein-Radan, *Notes on the Theory of the "Big-Push"*, MIT, CIS, March, 1957.

Ragnar Na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1953.

Harvey Leibenstein,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1957.

⑰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2.

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論理的 根據는, Rosenstein-Rod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 개의 不可分性이 있다. Higgins教授는 Rosenstein-Rodan을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説明한다.¹⁸⁾

The stress upon external economies, Rosenstein-Rodan argues, is a major mark of the difference between static theory and a theory of growth. In static theory, external economies are relatively unimportant. But in a theory of development, external economies abound because given the inherent imperfection of the investment market, imperfect knowledge and risks, pecuniary and technological external economies have a similarly disturbing effect on the path towards equilibrium. While the distinction between pecuniary and technological external economies becomes practically irrelevant in the theory of growth, three different kinds of indivisibilities and external economies may be distinguished.

- 1) Indivisibilities in the production function especially the indivisibility of supply of Social Overhead Capital (clumpiness of "capital")
- 2) "Indivisibility" of Demand (complementarity of demand).
- 3) "Indivisibility" (kink in the) Supply of Savings.

[Because of these indivisibilities] Proceeding "bit by bit" will not add up in its effects to the sum total of the single bits. A minimum quantum of investment is a necessary (though not sufficient) condition of success, This is in a nutshell the contention of the theory of big push."

말하자면 후진국의 工業化는 生產函數에 있어서의 不可分性, (外部經濟의 장로) 需要面에서의 不可分性(需要의 补充性) 및 貯蓄供給에 관련된 不可分性 때문에 同時的인 多元的 開發 아니고서는 工業化가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 聯繫性 없는 하나 하나의 独立的 投資는 技術的인 面에서나 採算上으로나 寸續性 수 없는 과정에 全體的 效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定規模의 最少限의 投資量 즉 Big Push는 必要的條件이 充分條件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成功의 必要條件이라는 점이다.

¹⁸⁾ Benjamin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1959, pp. 385-6.

生產函數의 不可分性, 특히 社會間接資本供給의 不可分性을 거의 모든 經濟學者가 주장 했으며, 따라서 후진국工業化는 一定量의 社會間接資本, 똑 같은 用語이지만 經濟의 下部構造(infra structure)를 먼저 마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우리는 先進國의 경제계획이 價格의 機能을 媒介變數로 하는데 反해서 후진국의 經濟計劃은 外部經濟의 창조를 媒介變數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은 거의 論爭의 對象이 될 수 없다. 그러나 需要의 不可分性 및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 그 強調點이 다르다. Nurkse 및 그 밖의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이 두개의 不可分性을 다 같이 強要하여 그것의 打開를 政策의 要訣로 삼고 있지만, Rostow나 Lewis는 資本供給의 不可分性을 주로 強調한다. 가장 要領있는 Nurkse의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은 다음과 같이 表現된다.^⑩

Low real income is a reflection of low productivity, which in turn is due largely to lack of capital. The lack of capital is a result of the small capacity to save, and so the circle is complete.

그리고 需要의 不可分性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投資誘因은 “分業은 市場規模에 의해서 制限된다”는 A. Smith의 命題의 “現代式變種”(modern variant)인, 市場規模에 의해 制限되는 것이나, 市場規模의 決定因子는 바로 生產性인 것이다. 왜냐하면 購買할 수 있는 能力은 生產能力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대

Productivity depends largely, though by no means entirely, on the degree to which capital is used in production. But, for any individual entrepreneur, the use of capital is inhibited, to start with, by the small size of the market.

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또 하나의 態循環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리하여 Nurkse는

^⑩ R. Nurkse, *op. cit.*, chapter I.

[The only way out of the dilemma is] more or less synchronized application of capital to a wide range of different industries. Here is an escape from the deadlock; here the result is an over-all enlargement of the market. Most industries catering for mass consumption are complementary in the sense that they provide a market for, and thus support, each other. The case for 'balanced growth' rests on the need for a 'balanced diet.'

라는近代化方案을 마련했던 것이다.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은 인정하면서도 需要의 不可分性을 인정하지 않는論者들도 있다. 그 代表的인 學者로서 Rostow를 들수 있다. 우선 그는 開發戰略을 基準으로 一國의 產業을 分類한다. 그는 그 部門에의 集中的 投資가 速成的 成長을 가져오게 하는 戰略的 成長部門과 餘他의 成長部門으로 產業을 구분한다. 前者是 主要成長部門(Primary growth sectors)이라 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需要의 增加 혹은 혁新(innovation)에 의해서 刺激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主要成長部門의 速成的 擴大는 이 部門에 半製品과 原料를 供給할 필요가 있는 補完的 成長部門(supplementary growth sectors)의 平行的 成長을 요청하게 된다. 끝으로 이를 兩部門에서 生산된 所得의 增加는 所得彈力性 여하에 따라 選定되는 派生的 成長部門(derived growth sectors)을 형성한다는 그것이다.²⁰ 그후 그의 主要成長部門 中心의 戰略的 成長理論은 “하나 이상의 先導工業” 中心의 戰略的 成長理論으로 表現이 바꾸어졌지만, 그 原理에 있어서는 变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 市場問題, 즉 需要의 不可分性은 克服된다고도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19世紀의 近代化過程을 20世紀의 後進國近代化過程에 適用시킨 데 불과하다. 그가 概念하는 主要成長部門은 사실상 19世紀에 있어서의 各國의 輸出工業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오늘날의 후진국에서 輸出工業 中心의 外向的 工業化

²⁰ W. W. Rostow, *Trend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Secular Growth*, in J. H. Dufay(ed.), Economic Progress.

가 가능한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아마 Prebisch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 확실히 否定的일 것이다.^㉑

그리고 需要 및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을 원칙적으로迴避할 수 없는것으로 보아, 주로 生產函數의 不可分性만을 打開함으로써 誘發投資를 일으키는 外部經濟를 政策變數로 보고, 貢獻과 需要面의 蠶路를 간접적으로 打開하려는 立場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속성적인 構造變革은 不可能한 것으로 본다. 그 代表的인 사람으로는 Singer^㉒- Hirschman을 들 수 있다. Singer는 Lewis의 所論을 例로 들어 다음과 같이 문제를 提起한다.^㉓

Arther Lewis has defined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s one of transforming a country from a 5 percent saver to a 15 percent saver. We can, with equal justice, define the process as one of transforming a country from an 80 percent farmer to 15 percent farmer.

이처럼 후진국에서는 農業人口의 比率이 높은 것이 또 하나의 惡循環을 이루는데, 이는 低生產性을 反映한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보통 非農業勞動者 對 農業勞動者の 生產性은 3:1이다. 따라서 農業爲主에서 非農業 中心으로 轉換하는 것은 리단 開發過程의 本質을 뿐 아니라 이러한 構造變革은 乘數效果도 가진다. 그러므로

As the levels of productivity and of real demand and markets rise, the structural change from an 80 percent farmer economy towards a 15 percent farmer economy, made possible by this rise, will in its turn generate forces which all themselves tend to raise productivity and real incomes.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암묵과 지란에 얹매인 不可思議論의 “均衡成長論의 出發點”이 되어 있다고 그는 攻擊한다. 이리하여 Singer는
The resources required for carrying out the policy of balanced growth...

^㉑ Paul Prebisch, *op. cit.* chapter III.

^㉒ Haus Singer, *op. cit.*, pp. 4—5

...are of such an order of magnitude that a country disposing of such resources would in fact not be underdeveloped.

라고 斷言함으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結論한다.

It may well be better development strategy to concentrate available resources on types of investment which help to make the economic system more elastic, more capable of expansion under the stimulus of expanded markets and expanding demands.

Hirschman은 약간 다른 立場에서 立論하기는 하지만 Singer와 同一한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 다만 그는 Singer나 均衡成長論者와는 달리 후진국의 隘路를 資源의 不足 보다도 “投資能力”, 이를테면 投資를 일으킬 수 있는 政策의 貧困에서 발전한다. 그에 의하면,

The ability to invest is acquired and increased primarily by practice; and the amount of practice depends in fact on the size of the modern sector of the economy. In other words, an economy secretes abilities, skills, and attitudes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roughly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sector where these abilities are already required and where these attitudes are being inculcated. ㉓

말하자면 후진국에서 실질적으로 不足한 것은 資源 그 자체가 아니라, “資源을 活用하는 能力”(ability to bring the resources to play)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原理를 더욱 具體的이고도 더욱 일관적인 문제인 “直接的 生產活動” directly productive activities(DPA)과 “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SOC)과의 관계에서 說明한다. 이리하여 후진국에서는 資源을 活用하는 能力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DPA와 SOC를 동시에 확대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후진국의 計劃問題는 經濟行爲決定의 誘發을 極大化하게끔 擴大의 “繼起”(sequence)를 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均衡成長(SOC와 DPA의)은 대부분의 후진국에선 탈성될 수 없으며, 且 所望불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成長率은 永續的인

㉓ A. O. Hirschman, *op. cit.*, p. 36.

不均衡에 의해서 더욱 빨라진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誘因과 壓力”的繼起 즉 外部經濟의 창조에 의해서만 成長은 빨라진다는 것이다.²⁴⁾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學者들은 후진국의 經濟的近代化가 構造的變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同意한다. 다만 그것을 가로막는 세개의 不可分性을 打開하는 點에서 意見을 달리한다. Rosenstein-Rodan, Nurkse, Leibenstein 및 Lewis등은 특히 外部經濟를 창조하는 社會間接資本의 형성을前提條件으로 한다면, 需要 및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을 동시에 打開하는 Big Push 혹은 均衡成長論을 주장하는 반면에, Rostow는 貯蓄供給의 不可分性만 除去되면 需要문제는 그의 主要成長部門中心의 戰略的成長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Singer와 Hirschman은 可用資源을 集中的으로 投資하거나, 誘因과 壓力으로極大의 誘發投資가 繼起되게끔 하는 이를바 外部經濟의 原理가 開發戰略의 要訣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만 Singer는 需要와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을 急激히 打開할 수 없다고 보는 대신 Hirschman은 資源보다도投資能力, 이를테면 政策的 바탕의 貧困이 真正한 후진국의 隘路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構造的變革에 의한 速成工業化를 否定하는 점에서는 같은 立場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理論體系의 결정적 難點은 첫째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能히 生產的으로 動員할 수 있는 經濟的剩餘를 거의 非生產的으로 投資하거나 流通過程에서 再分配하게 함으로써 후진국의 經濟的近代化를 가로막고 있는 前資本主義的 經濟制度의 變革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Boeke나 Hagen 그리고 Lewis의 社會變革은 오히려 그焦點을 잊고 있다. 후진국의 社會變革은, 적어도 經濟的觀點에서 본다면, 前資本主義的 經濟制度의 近代化가 主內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의 近代화가 반드시 19世紀의 古典的資本主義의

²⁴⁾ A.O. Hirschman, *op. cit.*, pp. 83-97.

그것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들은 社會變革 특히 制度變革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貯蓄供給의 不可分性에 대한 效率的인 政策手段이 발전될 수 없었으며, 한결같이 資源 혹은 資本의 不足을 最大의 難點으로 보았던 것이다. Hirschman이 資源의 不足 보나도 投資能力의 不足을 難點으로 본 것은 확실히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는 非生產的으로 흘러가는 資源의 生產的 動員문제를 提起하기보다는 아예 그것을 포기하고 漸進的인 成長을 畏함으로써 構造的 變革 그 자체를 斷念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正面으로 接近한 唯一의 歐美學者는 Baran 教授였다.²⁵⁾

둘째로 비록 不完全하나마 構造的 變革을 提起했던 學者들도 후진국의 歷史的 遺產 및 世界經濟的 聯關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歷史的 遺產, 즉 오늘날의 후진국의 世界經濟的 與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Rostow처럼 좋은 아이디아를 提供하면서도 19世紀的 近代化模型을 想起시킬 뿐, 歷史의 進展을 拒逆하는 政策手段 밖에 提示하지 못했던 것이다. 후진경제의 構造的 變革문제에 있어 그들이 唯獨 世界經濟的 聯關을 無視한 것은 Myrdal이 지적했듯이 한결같이 先進經濟의 國家利益을 앞 세우는 그들 자신의 學問的 態度의 所產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提示하는 構造的 變革은 世界經濟的 聯關에서 孤立되고, 따라서 自己完了的인 存在로서의 후진경제를 概念한다. 그러나 사실은 先進資本과 후진지역 民族資本의 對立關係 및 世界貿易構造의 變遷을 度外視한 후진경제의 構造的 變革은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경제의 真正하고도 現實的인 構造變革은 計은 植民地體制의 延長을 拒否하는 繙削的 대지 買辦的 產業構造의 清算이어야 한다. 여기서 開發戰略이 由來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는 構造變革이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問題意識은 Singer와 Prebisch에서 찾

²⁵⁾ Paul Baran, *op. cit.*, ch. 1 및 ch. 7.

아 물 수 있다. ㉙ Singer는 先進經濟의 부여의 投資 혹은 借款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떤다는 것이다.

Economically speaking, they (Investment and Loan) were really an outpost of the economies of more developed investing countries, the main secondary multiplier effects, which the textbooks tell us to expect from investment, took place not where the investment was physically or geographically located but (to the extent that the results of these investment returned directly home) they took place where the investment came from.

따라서 보다 넓은 경제계발 側面에서 보면 先進國의 對後進國 投資 및 借款은 오히려 “積極的으로 有害”한 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리하여 그는 후진국 경제정책의 焦點을 다음과 같이 描寫한다.

In the economic life of a country and in its economic history, a most important element is the mechanism by which “one thing leads to another”, and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an industry is not its immediate product (as is perhaps assumed by economists and statisticians) and not even its effects on the other industries and immediate social benefits (thus far economists have been led by Marshall and Pigou to go) but perhaps even further its effect on the general level of education, skill, way of life, investiveness, habits, store of technology, creation of new demand, etc.

다음으로 Prebisch는 주로 世界貿易構造與 交易條件의 惡化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후진국이 內向的 工業化 (inward-looking industrialization)를 指向하자 농을 수 銀을 수 차지하고 且나 高次元의 國際經濟協調를 강조한다. 世界貿易構造의 變遷을 보면 1920年代 까지 世界工業의 中心地였던 英國經濟는 19世紀末 代에 있어 世界의 鑄造品輸出의 1%를 차지하고 原始商品輸入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1850-1880年間의

㉙ Hans Singer, The Distribution of Gains Between Investing and Borrow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59.

英國의 總輸入係數를 보면 18%에서 36%로 上昇하고 있다. 그런데 美國이 英國의 位置를 차지하게 된 1830年代 이후 美國의 輸入係數를 보면, 1929年的 5%에서 1939年的 3.2%로 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서 도 4% 內外에 불과하다.²⁷⁾ 이는 美國의 多樣的인 經濟資源도 그 원인의 하나이겠지만, 그나라의 工業化初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先進國中 가장 높은 美國의 保護關稅에 기인 했던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餘他의 先進經濟는 原料의 合成生產과 農業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措置는 原始商品의 輸出을 為主로 하는 후진국에게 심대한 打擊을 주었던 것이다. 1930年代의 大不況은 이 世界經濟的 趨勢에 더욱 拍車를 가했고 특히 第二次 大戰은 결정적인 樣相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環境은 후진국으로 하여금 内向的 工業化를 擇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contrast with what happened after the great depression is striking. Circumstances compelled industrialization to turn inwards like a simple import substitution process—simple but generally costly. Could there have been any alternative?

.....Of course not.....

The Second World War gave this form of inward-looking industrialization still further impetus and nothing happened thereafter to alter this characteristic trend. Industrialization based on import substitution has certainly been of great assistance in raising income in those developing countries, but it has done so to a much lesser extent than would have been the case had there been a rational policy judiciously combining import substitution with industrial exports.

이와 같이 후진국이 内向的 工業화를 해서 輸出構造를 原始商品으로부터 製造品으로 轉換하는 努力を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輸出은 國內 生產費가 높기 때문에 큰 難關에 遭遇하게 마련인데, 國內生產費가 높

²⁷⁾ Paul Prebisch, *op. cit.*, P. 7.

은 것은, 주로 市場을 擴大할 수 있는 輸出品이 缺如되어 있는데 그 原因이 있다.” 따라서 후진국은 輸出보다도 輸入代替에 重點을 두어야 하는데, 輸入代替라 하더라도 非但 消費財에 局限할 것이 아니라 原料와 半製品 및 資本財도 國內生產을 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more rational policy would have given priority to import substitution in respect of goods which could be produced under more favourable conditions than others, not only consumer goods, as has generally been the case, but also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and capital goods²⁸

交易條件의 惡化는 어느 程度인가? Singer는 이미 후진국은 1928—58年間에 約 40%나 交易條件이 不利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²⁹ Prebisch에 의하면 石油를 除外하는 경우 “1950—61年間에 原始商品의 交易條件은 製造品의 그것에 비해 26%나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후자의 價格이 上昇한 때 기인하는 것이다.” 交易條件의 惡化가 후진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同期間中 후진국에 配定된 國際金融의 金額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950—61年間에 선진국이 후진국에 제공한 借款 投資 및 援助등 모든 資本額은 474億弗인데, 利子 利潤의 彎으로 還拂된 額數가 209億弗이고 交易條件의 惡化로 相殺된 것이 131億弗이고 보면 결국 純額으로 따지면 134億弗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Latin America의 경우엔 더욱 심하여 이 地域으로 流入된 모든 外國資本은 96億弗에 不過한데, 利子 利潤으로 償還된 것이 134億弗이고 交易條件의 惡化가 101億弗이어서 결국 동기간中 Latin America는 139億弗의 資本을 先進國 특히 美國으로 送金한 計算이된다.³⁰ 게다가 후진국 工業化에 거의 貢莫가 없는 美國의 剩餘農產

²⁸ Ibid, pp. 21—22.

²⁹ Haus Singer, Economic Progres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ocial Research*, March 1949.

³⁰ Paul Prebisch, *op. cit.*, pp. 18—19.

物援助를 年率 20億으로 推算한다면, 同期間中 약 220億에 달하므로, 따지고 보면 先進國이 후진국을 援助한 것이 아니라 후진국이 약 100億佛을 선진국에 援助한 셈이 된다. 특히 海外投資의 경우 先進資本은 후진국의 工業化를 위해서라기 보다 그들 國內工業의 原料調達를 위한 鐵山 및 고무栽培業과 消費財의 판매를 위한 加工業에 投資되었다. 이를테면 선진자본은 兩極端으로 들어오게 마련이다.

이 모든 世界經濟的 聯關을 고려한다면 후진국의 工業化는 단순한 內向的 工業화 라기 보다 生產費를 어느 정도 無視하더라도 技術的으로 가능한 한 多樣的 工業화가 요청되며, 그렇게 하는 것 만이 帝國主義의 隸屬과 買辦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말하자면 隸屬的과 買辦的 產業構造로부터 自主的 產業構造への 轉換, 그것이 후진국의 內向的 工業화의 投資戰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四. 結論

Myrdal은 “低開發國家는……傳承된 先進國의 經濟理論을 마음대로 利用하고 있지만, 이 理論 역시 無批判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그것을 올 자신의 問題와 利害에 適合하지 않을 改造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들은 특히 이러한 理論은 그 대부분이 최초로 나타나고 그후 발전한 先進工業國家의 壓倒的 利害關係의 合理化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이 말은 확실히 후진국의 學徒들이 깊이 咀味해 볼 만한 말이다. 그가 지적했듯이 國際經濟理論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만일 19世紀에 英國에 뛰어난 工業화한 美·佛·獨·伊·日이 英國產業資本의 이데올로기였던 Ricardo의 靜態的 國際分業論을 그대로 받아드려 農業을 特化함으로써 近代化를 이루었더라면 아마 오늘의 발전은 보지 못했을 것

³⁰⁾ Gunnar Myrdal, *op. cit.*, (韓譯) P. 99.

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 國際分業의 原理를 逆으로 이용하여 工業에 대해 保護措置를 취했기 때문에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Rosenstein-Rodan을 비롯한 先進經濟學者들은 후진국이 鐵鋼業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先進國에서 그것이 過剩生產되어 있는 만큼 世界資源의 浪費를 가져올 뿐 코스트上으로도 無謀한 짓이라고 주장하기가 일수이다.³²⁾ 이러한 強力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世界貿易構造나 그 밖의 事情은 후진국의 內向的 工業化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우리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선진경제는 既存의 世界經濟的 聯關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利害關係를 계속 유지하자면, 先進國의 經濟的 摧取 혹은 그 經濟的 優位를 지속하기엔 알맞지만 후진국 그 자체를 위해서는 非生產的이며 買辦的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前資本主義的 經濟制度를 후진국이 溫存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民主主義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만 過去의 그들처럼 오늘의 후진국도 經濟的 繁榮을爭取할 수 있다고 暗示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19世紀의 후진국도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원하는 오늘의 先進經濟 역시 떨써 古典的 資本主義體制를 벗어나, 修正資本主義的 統制機構를 갖고 있는 것이다.³³⁾ 이와같이 이들 先進國은 후진국이 近代化하자면 그前提條件으로 반드시 先行해야 할 制度變革을 의식적으로 阻止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해 보기로 한다.

1) 先進經濟學者들은 經濟的 後進性의 概念을 그 本源的 原因에서 導出하지 않고 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表面的인 事象에만 着眼하여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本源的 病源이 近代化 즉 產業主義를 뒷바

³²⁾ P. N. Rosenstein-Rodan,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The Economic Journal*, June, 1943.

³³⁾ The Employment Act of 1946. 및 William H. Beveridge,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London, 1944, pp. 175-180.

침할 수 없는 落後且 半封建的 혹은 前資本主義的 諸制度라는 점에 대한 肯定을 의식적으로 回避함으로써, 후진국의 經濟的近代化에 선행해야 할 社會變革, 특히 制度變革을 부정하는 先進資本主義의 利害關係를 반영한 것이다.

2) Boeke 및 Furnivall 등 社會變革을 주장하는 學者들도 확실히 있지 만, Lewis가 말하는 소위 “節約하고자 하는 意志”를 뿐어 넣어줌으로써 후진국의 human behavior 를 西歐化해야 한다는 데 그 焦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非經濟的인 동시에 非合理的인 후진국의 human behavior가 近 300年間 西歐文明의 影響을 받았으면서도 合理化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非合理的性格으로 더욱 굳어져 온 理由를 그들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非生產的 人間行動은 그들의 경제적 摘取를 위해 便利했던 까닭에 그것을 温存하기 위한 그들의 應民政策의 所產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論議는 오늘에 있어서도一部 热帶地方에게 확실히 문제되어야 하겠지만, 후진국의 社會變革은 한편에 있어 후진국 그 자체의 工業化를 制度面에서 가로막고, 다른 한 편에서는 先進經濟의 買辦的 역할을 하기에 알맞으므로써 지금까지의 經濟的 隸屬關係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기 마련인 落後且 前資本主義의 經濟制度의 變革을 主內容으로 해야 한다. 制度變革의 方向으로는 社會主義的 方向과 混合經濟的 그것을 들 수 있는데, 能率과 摩擦面에서 判斷하면 오히려 混合經濟的 制度가 適合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이데올로기와 그 政策的 目的是 다르지만, Fascism의 制度와 결과적으로 恰似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후진국의 經濟的近代化는 결국 制度變革과 構造變革으로 要約할 수 있는데, 構造變革에 관해서 보면, 대체로 Rosenstein-Rodan, Lewis, Nurkse, Leibenstein 및 Higgins 등 均衡成長論者들은 構造的 變革의 必要性을 인정하나, Rostow, Hirschman 및 Singer 등 不均衡成長論者들은

중국적인 目標로서는 인정하되, 政策的 過程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이들의 論爭點은 세개의 不可分性, 즉 (1) 生產函數 특히 社會間接資本의 不可分性, (2) 需要의 不可分性 と 市場問題 그리고 (3) 貯蓄供給의 不可分性 즉 資本不足問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 같다. 있다고 보는 側은 均衡成長, Big-Push 혹은 最少努力說을 내세우고, 없다고 보는 側은 主要成長部門 中心의 成長, 不均衡成長, 혹은 戰略的 集中投資論을 내세운다. 그리고 前者는 速成工業化에 의한 構造的 變革을 의미하고, 後者는 漸進的 戰略的 成長을 뜻하며 속성적 構造變革을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長期間에 걸쳐 결파적으로 構造의 變革이 이루어지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概念하는 構造變革은 오늘날의 후진국의 歷史的 遺產을 無視할 뿐 아니라 世界經濟적 聯繫을 無視함으로써, 후진국 그 자체를 이려한 遺產과 聯繫에서 떠난 自己完了的인 存在로 看做하는데 根本的인 缺陷이 있다. 그러는 테는 由於 植民地體制로부터 繼承한 先進資本主義의 經濟的 利害關係를合理화하려는데 그 理論的 動機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概念하는 構造的 變革은 農業社會로부터의 工業社會로의 轉換이 아니면, 5%의 貯蓄率에서 10% 혹은 15%의 貯蓄率을 갖는 經濟으로의 轉轉을 云謂할 뿐이다.近代化가 產業主義의 實現임은 물론이고, 또한 貯蓄率이 아 產業主義를 肉體化할만큼 높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첫째로 植民地體制로부터 물려받은 經濟的隸屬關係의 清算 없이 產業主義가 實現될 수 없는 까닭에 Prebisch의 이론 바 內向的 工業化論은 후진국 近代化的 當面의 指標가 되지 않을 수 없다. 1930年代 이후 先進資本主義經濟が 世界市場의 完全開發로 밀리 암아 Hansen의 이론 바 外延的 成長 (extensive growth)으로부터 內包的 成長 (intensive growth)으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④ Fascist

^④ A. 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New York, 1941, P.39,

經濟와 修正資本主義經濟는 後期獨占資本主義段階라는 經濟的 與件에서
 다 같이 內包的 成長으로의 構造的 變革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Simons가 지적한 바와같이 모두가 “極端的인 經濟的 民族主
 義”인 것이다.³⁵ 오늘날의 후진국 工業化가 똑 같은 말이지만 內向的
 혹은 內包的性格을 피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이에 끗지 않게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 貯蓄率을 國民所得의 5%로부터 10 혹은 15%로
 上昇케 하자면, 아무래도 潛在的 貯蓄資源——Baran의 潛在的 經濟剩餘
 의 概念——을 非生產的으로 投資하던가, 아니면 流通過程에서 再分配·
 消費하고 마는 前資本主義的 制度를 近代化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先
 進學者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의 利害關係로 말미암아 이
 制度變革을 되도록 遷避하여 하기 때문에 資本調達問題를 后진국 近代化
 의 가장 큰 難關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자신이 없기때
 문에 사실은 均衡成長論과 不均衡成長論으로 對立되고 있는 것이다. 制
 度變革만 先行한다면 사실상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外資調達과 技術知識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內資調達을
 제대로 끗하는 후진국이라면 처음부터 近代化를 포기하고 隸屬的 經濟
 關係에 滿足함으로써 憤叛술이 經濟를 지속하는 수 밖에 없다.

4) 따라서 制度變革은 결국 資本調達과 관련되며, 構造變革은 投資計
 劃과 관련된다고 결론 할 수 있다. 制度變革은 現實資本形成率을 現實
 貯蓄率의 水準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措置이며, Baran의 表現을 빌리면
 現實經濟剩餘를 潛在的 經濟剩餘의 水準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措置인 것
 이다.³⁶ 構造變革은 投資計劃 혹은 投資戰略의 基準이 되는 것이지만,
 후진국의 當面의 課題로서는 買辦的 내지 隸屬的 體制의 斷切을 끗하는
 內向的 혹은 內包的 工業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戰略的 문제가 고려된

³⁵ Henry C. Simons, *Economic Policy for a Free Society*, 1948, P. 277.

³⁶ Paul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1957, Chapter I.

연후에 있어서는 단순한 戰術的 문제로서의 Rostow, Singer 및 Hirschman의 投資理論을 合理的으로 應用할 수 있을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 서 均衡成長論 對 不均衡成長論, 혹은 Big-Push나 戰略的 最少努力說 對 主要成長部門 中心主義나 戰略的 投資論은 사실은 戰略 對 戰術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立場에서 보면 制度變革을 前提로 하는 한 戰略과 戰術은 동시에 追求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人口의 壓力 및 買辦的 經濟關係로 부터의 脫皮, 즉 후진국의 真正한 經濟的 近代化는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詳細한 論議는 拙者의 다른 論文에 마친다.³⁷⁾

³⁷⁾ 朴喜範, 後進國에 있어서의 內資의 調達과 之 產業別 配分, 經商論集, 第1卷第1號 및 第3卷 第4號, 서울大學校商科大學附屬 韓國經濟研究所, 1962年夏 1964.